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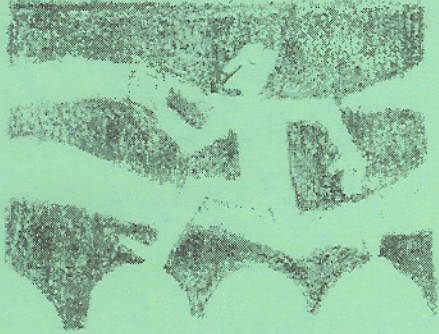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3주일(위령성월)
 제27권 51호 (다해) 2007. 11. 18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려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묵상]



징검다리

거센 물살 휘둘러 넘쳐흐르고
 꺾이고 넘어진 수풀과 바윗돌 구른다 해도
 당신이 놓아주신 징검다리를 당신의 손잡고
 경충 경충 평화의 나라로 건너갑니다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중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메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려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김중돈 스테파노, 장두선, 조남선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김원모 웬테리노와 세실리아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규형 곤잘레스 이은완 야고보, 이웅심 요셉과 김서운레, 김형진 홍 라파엘라와 김모니카, 노영옥과 노로사 한우석 요셉과 윤영인 안나, 거튜드 리드 전연옥 마리아, 정계복 마리아, 임홍식 베드로 김중돈 스테파노, 박정아와 천서인 레지나 김금란 수산나, 김이기 요셉과 김순희 헬레나 (생)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이종민 요셉, 윤자열 마리아 유진숙 비비안나 가정, 권순길 세실리아 가정, 박준구 요한 우영희 엘리사벳,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이복임 엘리사벳,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 예언서 (Malachi) 3,19-20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시려 주께서 오시리라. <전례성가 94, 연중 제33주일 다해>
화답송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노래하라. 수금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나팔에다 각적소리 한데 아울러면서 임금이신 야훼 앞에서 한껏 즐겨라.◎ ○바다여 소리쳐라, 그 안의 모든 것도. 누리여 소리쳐라, 거기 사는 모든 것도. 강물들 손뻑치고, 산도 함께 춤추어라.◎ ○주께서 오시나니 주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려 주께서 오시나니. 당신은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시리라.◎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 (2 Thessalonians) 3,7-12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노라.◎
복 음	루카 (Luke) 21,5-19
영성체송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는 좋으니이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으리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8	196
봉헌	목마른 사슴	269,264
성체	367	309,282
파견	430	218

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계속)

▶하느님의 나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하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의 나라는 구약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온 누리를 의롭게, 온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것’ (시편 98,7 참조)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착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하느님 나라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왔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도록 가르치셨다.

▶참 행복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10)

‘참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 준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조적 불의와 제도적 차별 때문에 참 행복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함으로써 그들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꺾박 받을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역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로 인정받고,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마태 12,28)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계속 - CBCK 제공)

부활을 믿는 사람

임종을 앞두고 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녹음한 테이프를 건네주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들들은 어머니가 주신 테이프를 들었다. 그 테이프 안에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오랫동안 직접 복음서를 읽어서 녹음했다. 그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남겨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남은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녀들은 떠들거리며 성경 말씀을 읽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 테이프를 유산으로 남겨 주셨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오늘 복음(루카 21,5-19)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다. 세상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한 마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11월은 위령성월로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보내는 은총의 시기이다. 교회는 이 기간 동안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죽음을 자주 묵상하도록 권고한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오히려 삶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아지고 분명해지는 이치이다. 세상 종말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다. 그래서 우

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셨다. 또한 유대인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결코 세속적인 왕이 아니셨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겸손의 왕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유대인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주님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생명이 죽음을, 선이 악을 결국 이긴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다. 이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7-19).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미영 미카엘라	이진향 아네스	해설자	강정현 시몬	최진수 에우세비오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김교복 래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유철희 마오로	서병교 라파엘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빅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서혜경 세라피나
제물봉헌자			P.V. 1반	제물봉헌자			카슨/하버 1.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목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5,188단 ☞ 총 합계: 219,524단

추수 감사절 오는 22일(목)은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입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전날까지 자선행위와 속죄, 그리고 경제정의에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Thanksgiving이란 단어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물론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 날을 지냅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 ◆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남가주소식란 참조)
 - 일시: 11월 2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엘도라도 팍(카폴은 오전 8시까지 성당 집합)
 - ※ 22일 목요일 본당 저녁미사(7시30분) 없습니다.

- ◆ 레지오 마리에 주회를 시작했습니다.
 - 순교자의 모후 Pr. : 수요일 오후 8시(자매)
 - 바다의 별 Pr. : 수요일 오후 8시(형제)
 - ※ 약 두달 후 선서식을 통해 정식으로 레지오가 창단됩니다.

- ◆ 푸르실리스파 단체촬영 및 울뜨레아 11월 정기모임
남가주 푸르실리스파 25년사 제작에 필요한 사진 촬영입니다. 본당 푸르실리스파들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 일시: 11월18일(오늘 주일) 낮미사 후 즉시
- 장소: 성전에서 단체촬영 후, 강당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울뜨레아 모임을 갖습니다.

- ◆ 백삼위 바둑/장기 동호회에 초대합니다.
 - 주관: 요셉회(회장 김종환 야고보)
 - 회원자격: 백삼위 전신자(남녀노소 불문)

- 모임장소: 매주일 11시 미사 후 천교장. 오후 4시까지
- 동호회 임원: 회장 이병권 파비아노, 부회장 김형순 다니엘(장기 교수), 성낙호 요셉(바둑6단), 총무 차 안드레아 ☎ 349-0914

- ◆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녀들의 주일학교 등록과 출석에 적극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부모님은 등록서류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청소년 분과위원장 김순희 모니카(☎310-850-6253)

- ◆ 성모회 김치 판매
 - 성모회에서 캘리포니아 스타일 김장김치를 담겼습니다. 아무데서나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속을 넣은 통배추김치
 - 판매 일시: 오늘 토요일전 미사와 주일 아침미사~낮미사 후
 - 가격: 큰 병 \$13, 천교장에서 판매합니다.

- ◆ 전 신자 대상 “은혜의 밤”
2007년 전례주년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새 전례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은혜의 밤”에 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11월29일(목)~30일(금), 성전
 · 찬미: 오후 7시 · 미사: 오후 7시30분
 · 특강: 오후 8시~9시30분
● 지도: 오수영 히지노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창설자)

- ◆ 대전회 가족 1일 피정
 - 일시: 12월 9일(주일) 오후 1시, 성전에서 대림특강과 함께
 - 강사: 박정배 신부(샌프란시스코 성마이크일성당 주임신부)
 - ※문의: 현석주 아오스딩 ☎ 310-594-9472

-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 18일: 토런스 동 2반 (오맹국밥 \$3)
 - 11월 25일: 토런스 북 3반 (곰탕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덕희	장인모	강태홍	김 욱	김교복	김병태
	김영경	김영미	김완태	김원호	김윤진	김재영
	김종환	김주량	김준호	김형순	노혜숙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상준	박순자	박영룡	박재철
	박정순	박희자	방세훈	안동훈	안재만	오세원
	오일순	오진자	원건희	유선식	유호연	유희연
	윤석구	이영숙	이일길	이일형	장영진	장정진
	정규숙	정열모	조준제	지경수	차인수	채양석
	최재은	현석주	홍윤정	홍주희		
	합계 : \$4,780					

성전헌금	강태홍	김 욱	김교복	김병태	김영미	김원호
	김윤진	김종환	김주량	김준호	김형순	민봉식
	민소예	박광자	박상준	박순자	박영룡	박재철
	박희자	방세훈	안동훈	안재만	오세원	오일순
	오진자	원건희	유선식	유희연	이일형	장영진
	장정진	정규숙	조준제	지경수	차인수	채양석
	최재은	현석주	홍주희	안나희		
	합계 : \$5,260					

미사헌금 : \$2,742 병·켄 재활용 수입 : \$100.60

감사헌금 : 최양숙, 성낙호, 이태호, 박혜숙, 정미영, 조화숙, 이에영

공지사항

- ◆ Homeless People 돕기 2차행사 잘 마쳤습니다.
 - 정하상 바오로 형제의 음식 기증과 최경애 프란체스카 다미아노 부부의 이발봉사,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봉사해준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로 2차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 12월 둘째주일, 3차행사를 앞두고 지속적인 관심주세요.
 - ☎ 310-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 중고 휴대폰 수집

대건회가 환경보호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중고 휴대폰을 모읍니다.

☎408-3175(천광락 야고보) ☎213-435-1600(김우용 시몬)
- ◆ 미주가톨릭 다이제스트 재 구독신청
 - 뜻밖의 사고로 구독신청명단을 분실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구독 신청한 교우들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 ☎ 201-289-9939(미주다이제스트사 구독신청 직통)
- ◆ 본당 파킹랏 토런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 일시 대여

커뮤니티 유대관계의 일환으로 11월19일 부터 12월 5일 까지 월~금(오전6시~오후6시) 주중에 본당 주차장을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토런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 대여함을 공지합니다. 신자들의 성당출입에는 불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가주 소식

- ◆ 제 26회 추수감사절 남가주 한인 천주교회 합동 야외미사 및 2부행사
 - 1부 미사: 11월22일(목) 오전 10시, 엘도라도 팍
 - 미사 주제: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2부 행사: 각 본당 대향 가장행렬과 줄다리기

 - 가장행렬: 성서에 바탕을 둔 내용
 - 줄다리기: 참가인원 20명(남성15명, 여성5명)
 - 주관: 성 마태오 한인천주교회 ☎ 818-242-4377
- ◆ 가톨릭방송 주관 풍선아트 무료 강좌
 - 11월29일: 기초강좌와 크리스마스 주제
 - 12월27일: 기초강좌와 뉴이어(새해) 주제
 -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신청: 미주 가톨릭방송 ☎213-385-5564
- ◆ 성모기사회 하루피정 '용서와 화해'
 - 일시: 12월1일(토) 오전 10시~오후4시
 - 장소: 성프란치스코 성당(2040 W. Artesia Bl. Torrance)
 - 강사: 전달수 안토니오 신부
 - 문의: 폰벤뚜알 성 프란치스코회 이영신 수사 ☎380-4647

이번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명자 데레사 328-0847 11/9(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박선화 안나 325-3888 11/10(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11/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종택 베르나르도 542-5517 11/3(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11/2(금) 오후 7시, 마포주물터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조은아 율리아나 533-0208 11/13(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박명자 마가렛 326-5867 11/16(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영미 파센시아 892-9651 11/20(화) 오전 10시 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현창 야고보 214-2290 11/9(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1/9(금) 오후 7시,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이병우 마리오 891-3315 11/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12/1(토)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1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11/14(수) 오전 10시30분

이 땅에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은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더욱 잘 깨닫고 더욱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1968년 제정된 이래 마흔 번째 맞는 평신도주일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 우리는 지난 세월 우리 평신도들이 신앙인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지금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실행할 것을 새로이 다짐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을 잃고 진리와 생명을 거스르는 '죄의 구조'에 빠져 있는 데는 우리 신앙인들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기에 말입니다.

2. 우리 교회를 세운 평신도 신앙 선조들은 이 땅에 복음의 정신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루카 21,16-19)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들은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진리의 협력자’가 되어 온 겨레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3. 이처럼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땅의 우리 평신도들은 무엇보다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복음화 하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평신도 교령 13항) 하느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제 구실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교회는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이웃이 모두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을 복음화 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온갖 악의 세력에게 위협 받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섭니다. 우리 신자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가정문화를 창조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칠 힘이고 우리 교회와 사회의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5. 모든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 평신도들의 근본 임무입니다. 인권 중에 최우선적이며 근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입니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생명권의 주체입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38항) 그러므로 우리 평신도들은 특히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함께 되어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만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6. 우리 평신도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단호히 배격하고 올바른 생명윤리가 확립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학 연구 종사자들과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작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언제나 깊이 존중하도록” (베네딕토 16세 11월 일반 기도지향) 교황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7. 인간답게 사는 데에 종교의 자유는 없어서는 안 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어느 정권, 어느 사회, 어느 체제와 환경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면서 북녘 동포들을 걱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북녘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자라나도록” (베네딕토 16세 11월 선교지향) 교황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8. (생략)

9.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진작시키며 복음 선교를 위해 기도와 활동으로 노력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 2007년 11월 18일 / 제40차 평신도주일(연중 제33주일)을 맞이하여 /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